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주일에배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1월 28일 (제1125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방심은 금물!

“김종일 장로에게 배워라.”

나는 예배 때 각 부 사회를 보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김종일 장로는 우리 교회에 1호로 온 남자 성도이다. 그러니까 김 장로는 우리 교회의 살아있는 증인이요, 나와 동고동락을 함께 한 자요, 지금까지도 교회의 기둥으로 일하고 있는 보배 같은 존재이다.

나는 지근거리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감탄하고, ‘역시~~’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있는데, 그는 그날 봉독할 성경 말씀을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는 것이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일과 수요일에 예배 때 사회를 보았으니 한두 번 읽어봐도 실수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는 그날 봉독할 말씀을 단에 오르기까지 읽고, 또 읽고, 체크해가며 다시 읽는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과 호흡과 억양으로 최고의 사회를 진행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익숙하다고 방심하다가 그런 것이다. 방심(放心)이란 놓을 방(放), 마음 심(心)으로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뜻이다. 마치 실에 묶은 풍선을 놓으면 향방 없이 날아가 버리듯 마음이 맘대로 날아가 버리니 그 안에 실향된 신중함도, 열심도 함께 날아가 결국 실수하게 되는 것이다. “아~ 그거 다 아는 거였는데 실수했어.”, “아~ 그거 다 할 줄 아는데 왜 틀렸지?” 방심해서다. 여호수아가 작은 아이성에는 참패를 당한 것도 다 방심한 탓 아닐까.

성경에는 방심이 금물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할 줄 알아.’, ‘그거 알아.’,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족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빌 3:12~14)고 했다. ‘이만하면 교회도 제법 크고, 세계복음화도 어느 정도 했고...’ 이렇게 나도 방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실수와 실패로 이어짐을 나는 알기에 오늘도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양 최선을 다하며 산다. 방심은 금물이다! 사고 난다.

나는 내 생각을 접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지난 1991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집회를 메인스타디움에서 하신다고 선포하셨고, 교회는 합심으로 기도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교인들 중 어느 하나 추운 계절에 야외집회를 하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나 걱정도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벨로드롬에서 구름으로 태양을 가린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고, 올림픽공원 행사 관계로 예배 처소가 없을 때 비를 내리사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무사히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있으며, 목사님을 통해 불가능

하시며 기도하여 1992년 6월 7일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대성공으로 이끄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리라.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신다. 이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기반을 둔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삶의 고통스런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내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단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한 베드로이기 이것이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된 일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교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권력도 의지해보았습니다. 돈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럽게 하시며 저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



1992년 6월 7일 메인스타디움집회 광경

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솔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2월 초로 기억하는데 주일에배에 단에 오르신 목사님은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이듬해 6월로 연기하신다고 발표하셨다. 목사님의 생각은 크리스마스 집회를 메인스타디움에서 열고 싶었으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 교인들에게 발표하고 추운 날씨를 봄 날씨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니 걱정 말고 준비하라며 독려한 나는 뭐가 되냐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종은 종이요,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는 마음에 목사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을 변경한다고 말씀하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즉시로 땅끝예수전도단 본부에 침대를 설치하고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침식

를 쫓는 것이다. 곧 내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나는 내 생각을 접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간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접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음 달 22일이면 목회 37년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5장에 ‘내 생각을 접고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하던 베드로처럼, 내 생각을 접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왔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해도 잡지 못하던 고기를 내 생각을 접고 예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올라와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야 다 실

지 말찌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시 146:3~4). 그 후로 나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백그라운드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수만이 나의 정복자가 되길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작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들어 전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고 세계에 명성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지혜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융성도 모두 예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백문백답, 천문천답이 나에게서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 여러분이 나를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위드코로나, 단계적 원상회복 조치로 50% 대면예배 실시

주일에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7:11~19)



감사는 깨달은 자의 고백이다

작년 기도원에서 재배한 사과를 정말 형편 없었습니다. 양적인 면은 물론이고 맛이나 크기도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식구들을 모아놓고 “아니, 아랫마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우리 기도원은 왜 이러냐?”고 했더니, 오장로가 “저희 책임입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죠.”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원 식구들에게 아랫마을에 사과농사 짓는 분을 직접 만나 배워보라고 말했습니다. 깨달은 기도원 식구들은 사과나무를 전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정하고는 제 말대로 아랫마을 분께 방법을 물어 그대로 실행하며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사과농사가 아주 잘 되어 나무마다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감사하며 사과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은 것보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또 제 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더욱 감사했습니다.

깨달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나 다름없다

그렇습니다. 감사란 느낄 감, 감동할 감(感), 사례 사(謝)입니다. 즉 내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할 때 상대방에게 사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느끼고 감동하느냐? 바로 깨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문둥병 열 명을 만나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찾아와 예수께 영광을 돌렸고, 나머지 아홉 명은 감사는커녕 인사 한마디 없이 돌아갔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눅17:17)”라고 물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당시에 열 명의 문둥병자 모두는 고침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고 가다가 고침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 명중 한 사람만이 깨달은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눅17:18)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가다가 “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구나.” 깨닫고 돌아와 감사한 것입니다.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넘치는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후1:13),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1:15).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훼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던 극악

무도한 사람이었음을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 그래서 그는 매를 맞아도, 굶어도, 포승줄에 묶여도 감사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조차 귀히 여기지 않는 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단

앞

에 올

려 지

기

를 무엇보

다 소원했습니

다. 이것이 진정한 감

사입니다.

어디 사도 바울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

던 베드로는 어린 비자 앞에서 스승인 예

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죽기까

지 따르셨던 그가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세 번씩 예수

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대역 죄인

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는 그 죄에 눌러 살았습니다. 예전

처럼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지만 의욕

도 없이 그저 그물만 던져놓고 무의미하

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

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

다. 그리고 그에게 물고기를 구워 허기를

채워주신 후에 물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동

일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

로소 깨닫습니다. 배신자인 자신을 여전

히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염없

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

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21:17). 그

런 그가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례합니

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

기까지 ‘내 양을 치라’던 예수님이 주신 사

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비천한 저를, 죄 많은 저

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종으

로 삼으사 세계에 복음을 전케 하신 그분

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이 한 목숨 바쳐

주의 일에 힘쓰고, 절대 순종하며, 자원하

여 그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됩니

다. 부모님이 나를 어

떻게 키우셨는지,

나 하나 잘 되

게 하려

고 열

마

나

고

생하

셨는지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

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감

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하게 되

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

모는 자식이 어려운 중에도 공부 잘해서

번듯한 사람이 되어준 것이 가장 큰 감사

라고, 그것으로 충분한 사례라고 생각합

니다. 그렇죠? 자식이 잘 돼서 용돈 많이

주고, 해외여행 시켜주는 것도 감사하지

만, 그것보다 자식이 좋은 열매가 되어준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끄느라, 자녀를 키우느

라 서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깨닫게 되면

서로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 목사가 성

도들을 위해 얼마나 애꿎어 기도하는지

알면, 성도가 얼마나 주의 종들을 사랑하

는지 알면 서로 서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

다. 감사는 깨달은 자의 고백이고, 쌍방 공

동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불효하고, 서로 싸우고, 서

로 불평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에, 사울이 자신

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

지 못했기에 배신자가 되고,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경은 말씀합니

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49:20).

여러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

니다. 나오미는 행복을 찾아 이방인의 땅

인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행복 대

신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살던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

아가리라.’ 그래서 그는 며느리 룓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 재벌인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그를 통

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케 하십니다. 깨

닫는 것이 복이요,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

는 것이 더욱 큰 복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병들고, 가

난하고, 망하고, 고생하는 것을 감사하라

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울해야 할 일

이지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것은

내가 병든 것을 통해, 내가 가난한 것을 통

해, 내가 망하고 고생하는 것을 통해 하나

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고, 내가 깨달아 변화되면 이를 통해 하나

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감사

한 것입니다. ‘아! 내가 병든 것은 귀신 때

문이야.’라고 깨달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

도하면 성령충만하니 귀신을 쫓아 건강하

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는 겁니다. 그러니 깨닫는 것이 감사한 거

죠. 그 감사는 말로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드림으로 완성되는데, 그것은 내

게 주신 건강으로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된다

깨달음의 크기와 감사의 크기는 정비례합

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

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같이 눕히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부모님의 수고를 깨달을 때 감사하여 잘

섬기게 되고, 스승의 노고를 깨달을 때 스

승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헌신을 깨달을 때 목자의 말에 순

종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감사가 없는 것은 깨닫지 못

해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아홉 명의 문둥병자가 되지 말고,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럼 감사가 넘치

게 되고, 더 풍성한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

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

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을 얻게 하심이니”(살후2:13).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 1,100년에 걸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록하였지만 동일한 주제와 맥락을 가지고 기록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팔린 베스트셀러로서, 집계가 시작된 이후 통계를 보면 약 60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필수불가결한 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양약이라도 처방에 따라 복용하지 않으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에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계시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풀려고 하니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 그리고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가장 쉽게 말씀하셨는데 우매한 인간들이 그 속에 특별한 비결이 숨겨져 있는 줄 알고 엉뚱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은 연구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성화평 목사

성경을 마치 수학공식에 대입하여 풀려는 사람도 있고, 난해한 구절을 억지로 풀려고 과도하게 자신이 만든 가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이라는 테두리를 덮어씌울 때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기사를 가지고 하루가 10억 년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이론이며 인간의 쥐꼬리만 한 이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한 지극히 인간적인 이론에 불과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고 그 궁금증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평생을 그 궁금한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누가 난해한 성경구절을 느닷없이 물어보더라도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단사설에 빠져서 멸망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치 않을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8).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지식적인 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세상을 보는 창 ::

믿음의 시각으로!

언젠가 ‘특급 바둑판’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바둑판을 만들려고 나무를 잘라다가 바닷물에 담가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나무가 갈라지거나 갈라지지 않는 경우다. 그리고 난 후, 담갔던 바둑판을 말리게 되는데, 끝까지 안 붙는 것이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갈라진 것이 다시 붙는 경우가 있단다. 여기에서 바로 바둑판의 등급이 세 가지로 결정된다. 처음부터 갈라지지 않은 것은 일급 바둑판이 되고, 갈라진 채로 남아 있는 것은 싸구려 바둑판이 된다. 그런데 갈라졌다가 다시 붙은 것은 일급을 넘어서 최상급 바둑판으로 판정받는다고 한다. 그 바둑판은 갈라졌다가 다시 붙을 정도의 자기 회복력, 탄성 때문에 최상급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리질리언스(resilience)’란 단어가 있다. 이것은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탄력, 즉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말한다. 처음부터 아무 상처도 없는 존재가 일급이라면, 상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존재는 최상급이라는 거다. 우리 중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거나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할 것이 없음을 넘어졌

라도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달려온 일급 바둑판을 넘어 최상급 바둑판의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행여 망가지고 부서지고 갈라졌어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다시 일어나 원상 복귀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는 격려와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오면서 입게 된 상처나 깨어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전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존재로 최상급의 판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말이다.

이사야 12장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이 사야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회복을 믿음으로 예언한 내용이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 보자!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미래를 바라보자. 특급 바둑판으로 회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노래와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게 될 모습을 보고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정금 전도사

가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누런 사연들이
내 발을 덮고 사각거릴 때
계절이 스치는 하늘을
눈 가득 바라본다
오늘까지 심고 가꿔온 내 열매를 따서
내 주님 가슴에 전하고파
불붙는 단풍처럼 붉은 가슴을 열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朋友

:: 내가 매일 기쁘게 ::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자

지난 추석 무렵, 가까운 지인이 입원을 하였다. 척추 수술을 위한 것이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 회복이 빨라 근처 작은 병원으로 전원을 하고는 퇴원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물리치료가사 수술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부랴부랴 다시 수술했던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이후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수술 부위를 집중치료하면서 경과를 보는 중이다.

처음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놀라 걱정 이 매우 컸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러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무릎을 치고 이마를 짚을 수밖에 없었다. 말인즉슨, 병원을 옮긴 이후부터 속이 쓰리다는 이유로 처방된 항생제를 아예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말에 허탈한 웃음이 나오고야 말았다. 큰 수술을 한 뒤에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시 사항을 잘 따라야 그 병이 완쾌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법한 사실이었지만, 스스로 의사가 되어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았다니...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왕

왕 있다. 인적이 드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기도 하고, 나의 지인처럼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먹지 않기도 하며, 반대로 약과 영양제를 과잉 복용하기도 한다. 이는 나의 지식과 판단이 더 우위에 있기에 일어나는 잘못된 행동들이다.

삶 가운데 내 생각이 더 옳다며 지시사항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때로 내 의지와 생각을 우선시하며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기도 한다. 그러다 결국에는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 길 잃은 양이 되기도 하고, 울무에 걸리는 사슴이 되기도 한다.

여러 지시사항들은 우리를 지키는 안전한 울타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말씀의 제약들도 역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이다. 내 의지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내 생각이 더 맞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으로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믿고 따르는 삶이 지혜 중의 지혜이며, 복 중의 복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전훈지

:: 에덴으로 귀환 ::

:: 빛이 되리라 ::

역전의 명수

최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얹히고 꼬이기만 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심란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지난 10월 20일 수요일 예배 말씀 덕분에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반드시 역전시킨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목적 없는 훈련은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시련이 찾아오는데, 연단을 통해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역전할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길이 가로막혀 있었으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대한 바다가 갈라져 역전의 명수가 되었고, 에스더는 하만의 꾀계로 유다 자손들이 몰살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사울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꾀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다니엘은 왕의 신하들의 모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

았더니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역전의 명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역전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잘 아는 역전의 명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총회장이신 이초석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원이 넘어갈 위기에 있었을 때 마지막까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대법원에서 온전히 찾아오는 역전을 하였고, 서울교회 성전 부지를 매입할 때에도 마감이 지났음에도 극적으로 결재가 떨어지고 대출이 실행되어 잔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국내외 야외 집회 때 비 오는 날씨로 집회가 어려워지면 어김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여 결국 역전하는 역사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반드시 역전시킨다고 총회장 목사님은 강력히 외치시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시련 중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걱정 없던 일들까지 문제가 생

기다 보니 점점 미궁 속에 빠지는 상황이

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해결점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막연한 생각만 들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 말에 너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이 자타공인 역전의 명수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밤새도록, 수일 동안,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역전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전을 잘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과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총회장 목사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역전하는 역사를 쓰는 그 날을 꼭 맞이할 것입니다.

김은유 집사
ceo@edenique.co.kr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Good News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유평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부지불식간에 죽음이 닥쳐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

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꿈꾸며 노후준비를 하며 살아가지만, ‘고생 끝나면 죽는다.’는 옛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후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에 관한 통계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남자는 80세, 여자는 85세로 남녀 평균은 82.5세이며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는 평균 77.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길고 짧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한 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죽은 뒤에는 영원한 세상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복락의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지옥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 생활 속의 잠언 ::

배움의 중요성

대학교 문을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평생을 선생 노릇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지방으로 내려온 후 우연히 접하게 된 국비로 진행되는 창업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국비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하하며 멸시하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석 달 가량의 교육을 받는 동안 겸손을 배웠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을 만났고, 열정적인 강사분들을 만났으며, 창업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새로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말로만 했던 것 같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웃도는 나이임에도 젊은이들 못지않은 실력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옛날 우리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 때문입니다.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지만 아낌없는 지원과 어머니

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평생을 고소득 교육 사업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즘 핫하다는 유튜브 동영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업료를 내면서 동영상 수업을 받는 이유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중심교회를 찾았을 때 매주 진행되었던 성경교육과 조장·구역장교육은 그 시절 신앙의 기본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환란과 고통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뜬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시절 교회에서 배운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이렇듯이 교육과 배움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을 지향하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스터디카페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일반 성인들이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대학생 자녀와 함께 자격시험 공부를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가고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교육과 배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기회와 출구를 제공합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면 학습의 즐거움도 얻을 수 있지만 땅에 묻힌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에너지도 생깁니다.

늦었다고, 피곤하다고 자리에 눕는 순간 우리는 악한 마귀의 밥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과 유익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꾸준함이 주는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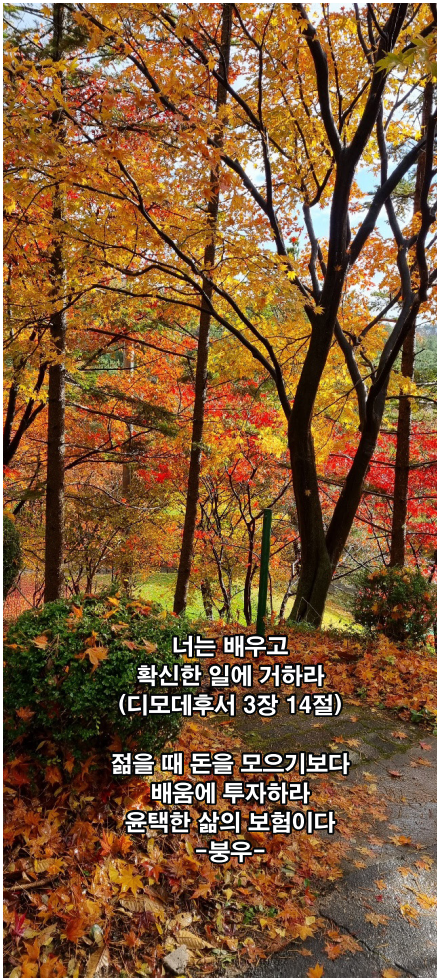
꾸준함도 쌓여간다. 그것도 단리가 아닌 복리로 쌓여간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결과로 나타난다. 꾸준함이 복리의 효과를 내서 그렇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꾸준함을 무기로 한 우리의 인생이다.

개인적으로 근래에 놀리는 것 하나가 있다. 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혈압이 좀 높은 편이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 2년 가까이 아무리 해도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운동을 이렇게 바꿔보았다. 매일 아침 40~50분 정도를 빠른 걸음으로 땀을 쫓 때까지 걷는 것이다. 도중에 뛰기도 한다. 때론 피곤하긴 해도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땀을 빼니 오히려 상쾌해졌다. 운동 후 씻고 바로 업무에 들어가는데 머리가 맑아서 오전 업무 효율도 좋다.

이렇게 거의 매일 운동한 지 5개월이 지났고 최근에 혈압을 재면 평균 20 정도 수치가 낮아졌다. 의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더 노력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꾸준한 운동이 더 나은 결실을 보게 한 것 같다.

적당히 하다 멈추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걸 자주 본다. 진득하니 인내하여 일정 단계를 꼭 넘어서야 한다. 목사님께서는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계점이 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 분야가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꾸준함을 바탕으로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젊을 때 돈을 모으기보다
배움에 투자하라
운택한 삶의 보람이다
-봉우-